파사현정(破邪顯正)의 천재신앙인

(욥기 39장 1~30)

1.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2.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3. 그것들은 몸을 구푸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4.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5.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6.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7. 들나귀는 성읍에서 지껄이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8.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9.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0.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써레를 끌겠느냐
11.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오늘 말씀 중심으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천재신앙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천재신앙인'
깨뜨릴 파(破), 간사할 사(邪), 드러날 현(顯), 바를 정(正)의 "파사현장"이라는 말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사현정은 능동태 표현입니다. 깨뜨리는 것도 내가 능동적으로 깨뜨리는 것이고 올바른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도 내가 능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빌려서 우리의 십자가복음 신앙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의미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릇된 것을 깨면 바른 것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병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물을 싹 비우면 물이 있던 자리에 공기가 들어차게 됩니다. 공기는 따로 채우려고 노력하

지 않아도 자연히 차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을 깨뜨리면 자연히 바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은 이 파사현정의 과정을 통해서 천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천재(天才)는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과 깨달음이 떠오르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노력 끝에 겨우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주어지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며 해답이 밝히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모두가 천재입니다. 모차르트는 악상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하고 베토벤은 각고의 씨름 끝에 악상을 떠올렸다고 하지만 둘 다 천재로 불렸습니다. 모차르트는 즉각적인 천재였고 베토벤을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그에게서 나타난 음악은 하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주실 때에 모차르트처럼 즉각적으로 주시는 즉각적 천재가 있고 베토벤처럼 노력의 과정 끝에 주시는 천재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도 즉각적 천재와 노력과 씨름의 과정을 포함한 천재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각적 천재가 있는가 하면 한 달짜리 천재도 있고, 백 일짜리 천재가 있고, 일 년짜리 천재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 년 만에 깨달음에 도달했다면 노력했더라도 엄격하게 말하자면 노력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깨달음은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적능력으로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착각합니다만 실제로는 다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천재인 셈입니다.

이 천재들 중에서 가능하면 즉각적인 천재가 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말씀 한 마디 하시는 것조차 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받은 것으로 사는 것이 천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100% 가장 완벽한 천재는 예수님뿐이셨습니다. 말 한 마디조차도 하늘에서 받으신 것이 아니면 하지 않고, 행동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천재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초절정의 천재의 길로 가는 길이 바로 파사현정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곧 파사현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릇된 것을 깨뜨리면 올바른 것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천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천재가 되어 하늘이 주시는 것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뿐만 아니라 말 한 마디 행동하나조차도 하늘에서 주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예로 드시면서 우주의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얽힌 그물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물 샐 틈도 없이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망으로 덮여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 나타난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체성은 내게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그 판단에 근거해서 생각하기, 그 생각이 모여 소원하

고 계획하기, 계획한 것을 추진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로 나타납니다.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하기'가 바로 주체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생각하시기, 계획하시기, 추진하시기, 일하시기, 행동하시기, 말씀하시기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주체성에 덮여 있는 세상 안에서 인간이 주체성을 활성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망에 구멍을 뚫는 것이고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체성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체성이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망을 찢는다면 찢어진 만큼 기쁨과 만족 대신에 괴로움과 불행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의 생태적 습성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염소와 들나귀와 들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알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명령하였느냐'라고 '하기'를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동물들과 연관해서 욥에게 '네가 하겠느냐, 알겠느냐, 길들이겠느냐, 이해하겠느냐, 근원을 밝힐 수 있겠느냐, 명령하였느냐'라고 반복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앞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물망이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욥에게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시며 인간의 주체성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무능한 것인가를 깨우치려 하십니다. 즉 우리 주체성의 무능력과 불필요성이 폐기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물들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동물들에게 보탬이 될 만하거나 이해를 위한 인간의 주체성은 아무런 쓸모없음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주체성이 폐기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며 살아온 사람이지만, 재앙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해지자 고통에 겨워서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참혹한 상황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인간의 주체성은 철저하게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파사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릇된 것을 깨뜨리면 올바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최우선적으로 파쇄 되어야 되는 가장 지독한 폐기물이 바로 인간의 주체성입니다. 내가 판단하기, 생각하기, 계획하기, 말하기, 행동하기가 이 세상 안에서 나의 삶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지독한 폐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체성이 폐기처분 되지 않고 활성화되면 활성화 될수록 삶은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주체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서 아담의 주체성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악한 독성을 가진 것이야 말로 활성화되고 있는 나의 주체성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원수 때문이 아닙니다. 북한 때문이 아니고 중국이 괴롭혀서도 아니고 일본의 막말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주체성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물이 들어있는 병을 비우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듯이, 나의 주체성을 폐기처분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시기, 하나님의 생각하시기, 하나님의 계획하시기, 하나님의 추진하시기 등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것이 드러나는 현정(顯正)이 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욥이 파악할 수 없었던 동물들의 모든 생태적 습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말이 상대방 적군이 창을 들이대고 있음에도 돌진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은 천재입니다. 타조는 바보처럼 알을 사막 모래 위에 내버려둡니다. 태양열에 덥혀지고 오고가는 짐승들에 의해서 밟혀지고 깨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타조에게는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을 비웃을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멍청한 타조가 알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할지라도 달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재입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높이 날며 멀리 바라봅니다. 천재입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100%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현실이 괴롭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태적 습성이 아닌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을 동물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격을 주신 이유는 스스로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라고 하심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체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인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만 인격적으로 선택한 결과는 아닙니다.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1:1의 상대자로 삼으셨습니다. 타조가 멍청해 보이지만 빨리 달리는 재능을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맘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동물들처럼 천재가 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전염병이나 마피아가 아니라 주체성입니다. 제일먼저 이것을 파사(破邪)해야 합니다. 이 간사함과 사악함을 무너뜨리면 바른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공기가 들어오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주체성은 이 세상에 공기가 차있듯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주체성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삶

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밀어냅니다. 이것을 파사할 때에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계획과 소원을 가진 천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상황을 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주체성을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돈 문제가 놓인 이 상황에서 가장 그릇된 일은 지금 돈 문제에 대해 내 주체성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 대해 안 좋다고 여기고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고 여기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나게(顯正) 될 것이고 그럴 때의 우리의 삶은 천재적인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기능의 능력은 스스로의 주체성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파사현정의 반복입니다. 가장 악하고 사악한 것은 나의 주체성입니다. 이 주체성이 활성화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 주체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더욱 더 주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저절로 두둥실 살아지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애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골로새서 3장 1절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체성은 오직 하늘을 향할 때에 그 온전한 용도를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떼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체성의 가장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그럴 때에 만족과 기쁨의 문제는 온전히 하늘로서 해결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볼 때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어져서 하늘로 만족한 상태에서만, 우리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한 것으로 채워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직도 얻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체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파사현정은 가장 사악한 내 주체성의 활성화가 십자가에서 깨뜨려짐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따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온전한 천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는 즉각적인 천재들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파사현정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나의 주체성이 죽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살아 움직이심으로서 일거수일투족이 하늘에서 받은 것으로서의 즉각적인 천재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